
Issue Briefing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20140814 vol.133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건립 필요성과 추진방향

연구진

김시백 (정책사업연구부 부연구위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C O N T E N T S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건립 필요성과 추진방향

- 1.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필요성 1
 - 1) 디자인 수요 산업의 영역 확장 4
 - 2) 디자인 지원 시설의 통합 관리 필요 6
- 2. 전라북도 디자인산업 진단과 전망 8
 - 1) 타 지역에 비해 기반이 취약한 디자인산업 8
 - 2) 전략산업과 전통문화 산업에 대한 디자인 수요 급증 9
- 3. 국내 디자인센터 추진 사례 13
 - 1) 디자인혁신센터(DIC: Design Innovation Center) 13
 - 2) 지역디자인센터(RDC: Regional Design Center) 14
- 4. 전라북도 디자인센터의 추진 방향 16
 - 1) 운영 방향 16
 - 2) 도입 기능 18
 - 3) 조직 구성 19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4년 08월 14일 vol.133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건립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전라북도 디자인산업의 거점 및 HUB역할을 수행하고 전략산업 및 문화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디자인센터 건립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식품 등 전략산업에 대한 고품질 디자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
 - 도내 여러 분야의 디자인지원 조직이 산재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북 디자인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산업이 특화되어 있고 이들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전략산업의 디자인 수요가 크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통문화 융합형 디자인센터로 추진됨이 바람직함

 -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디자인 관련 사업체 수는 연간 11%씩 증가한 반면, 전라북도는 연간 23%씩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어 전라북도 디자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음
 - 전라북도에서 전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 비해 높아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디자인 산업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충분한 특화 및 발전 가능성을 보유함
 - 전통산업의 규모가 1% 추가 성장할 경우 매년 필요한 디자인 수요는 37명인 것으로 분석되며 전통식품과 관련한 포장디자인, 주얼리와 탄소섬유 제품과 관련된 금속디자인이 전라북도 디자인 산업에서 우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디자인 수요는 연간 68명인 것으로 분석됨
-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센터와 차별화되고 지역경제에 기여되기 위해 전라북도 디자인센터는 다음의 두 가지 운영방향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추진되어야 함

 - 첫째,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융합되고 전략산업, 관광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에 디자인적 사고를 접목할 수 있도록 디자인 기반 창조경제 기반 구축
 - 둘째, 전통문화 디자인 영역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전라북도의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의 산업자원화를 꾀하고 한류문화 디자인 거점으로 육성

1. 전라북도 디자인센터의 필요성

1) 디자인 수요 산업의 영역 확장

-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창조형 서비스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창조형 서비스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 영화, 게임, 관광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관련 예술 산업과 융복합화된 산업으로 콘텐츠 및 시각적 디자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제조업에서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및 기간이 큰 반면 성공확률은 낮고 성공하더라도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는 작음. 하지만, 제조업의 디자인 분야에 R&D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내에 높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제조업에서도 디자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디자인 개발의 투자 대비 매출 효과

	평균 개발 기간	평균 개발비	매출 효과
기술 개발	2~3년	4억원	5배 증가
디자인 개발	6~9개월	2,000만원	22배 증가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2004

-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이들 산업에서의 디자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산업간 융합 확산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ICT 산업, 헬스케어산업, 기능성식품산업 등에서 디자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제조업 중 식품, 음료 및 담배, 섬유제품, 의류, 가죽, 인쇄, 플라스틱, 기계, 컴퓨터 및 전자제품, 운송, 가구 등을 디자인 수요산업으로 추정함
- 디자인 산업은 타 산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며 실제로 기존 산업에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사업체 중에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비율은 13.9%이며, 이 중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디자인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제조업 분야에서도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제품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밀접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산업에서도 디자인 활용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설업에서도 건축물 뿐만 아니라 조경 및 주변 경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디자인 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표 2〉 산업별 디자인 활용 수준

(단위 : 개소)

표준 산업 분류	사업체수		디자인 활용 비율
	5인 이상 사업체	디자인 활용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1,463	134	9.2%
광업	562	0	0.0%
제조업	114,674	21,727	18.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79	0	0.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296	0	0.0%
건설업	41,161	6,321	15.4%
도매 및 소매업	86,893	9,290	10.7%
운수업	17,713	366	2.1%
숙박 및 음식점업	53,397	0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577	5,625	41.4%
금융 및 보험업	28,876	4,829	1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798	1,935	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946	5,782	2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461	2,032	1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971	1,639	16.4%
교육서비스업	39,920	7,454	18.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8,714	2,438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428	1,296	2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625	5,149	21.8%
합계	548,454	76,041	13.9%

자료 :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보고서

- 전라북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식품, 목제품 관련 제조업과 관광산업, 예술 분야에서 디자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과 연계한 음식점소 역시 관광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다면 비빔밥 및 전통 음식에 대한 디자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라북도에 집적화되어 있는 상용차 제조업의 경우, 일반 승용차에 비해 자동차 디자인의 중요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상용차 산업의 부가가치화를 위해 틈새시장 공략 및 브랜드화를 위해 상용차에 대한 디자인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건축 관련 디자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식품과 관련한 포장디자인, 주얼리와 탄소섬유 제품과 관련된 금속디자인이 전라북도 디자인 산업에서 우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새만금 관광단지, 익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동부권 산림치유단지 등과 관련하여 관광산업이 전라북도의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관광객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전라북도의 관광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문화 컨텐츠 디자인 분야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임

2) 전북내 산재되어 있는 디자인 지원 시설의 통합 관리 필요

- 현재 지역디자인센터는 광역권별로 한 개소씩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호남권에는 2005년 광주에 건립되어 호남권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을 주관하고 있음
- 하지만, 광주 디자인센터로 인해 전라북도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광주, 전남에 소재한 디자인업체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디자인센터의 수혜정도는 미미한 실정임
- 전라북도 디자인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능이 부재하다 보니,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 지원 조직들은 많이 있지만, 이들 조직들의 기능이 당초 디자인 관련 제품개발 단계에서 마케팅지원 단계까지 총괄 지원한다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홍보물 제작에 국한됨으로써 오히려 디자인시장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
 - 기업의 경우 디자인 지원에 대해 공짜라는 인식이 강해 별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지원 조직에게 단순 홍보물 제작만을 요구
 - 디자인 지원 조직들은 고가 장비 구입 등 유지관리비 과다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소규모 지원 사업만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디자인 정책에 대해 고려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
- 뿐만 아니라 향후, 익산 주얼리 전용 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각각 주얼리 가공 및 식품 포장 관련 디자인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디자인 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될 경우, 지원 시설들의 영역 중복 및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표 3〉 전라북도 디자인 관련 조직 현황

조직	사업내용	주요업무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식품·바이오의 특화된 전문 디자인센터로 전북 식품기업 및 제품의 디자인 전략을 선도하며 기업의 사업화 아이템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디자인 One- Stop서비스 제공	용기개발, CI/BI, 패키지, 홍보물, 캐릭터 개발 등
한지산업 지원센터 디자인개발실	기업의 디자인 및 마케팅지원,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추진, 디자인인력 교육 및 훈련 등 : 디자인연구원 4명	한지상품디자인, 디자인장비지원, CI/BI디자인개발
한국니트 산업연구원 기업지원실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디자인 및 패턴개발,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한 업체 개발제품의 다양화 및 고부가치화 도모	맞춤형 제품 디자인 및 패턴개발지원, 디자인컨설팅, 패션정보제공, 패션쇼 지원, 샘플북 제작 등
전주문화재단 천년전주 명품사업단	전주목공예제품의 대표브랜드로서 '온' 브랜드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마케팅 지원 업무 총괄 : 인원 축소돼 현재 1명 근무	"온" 브랜드 명품개발, "온"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국내외 전시운영
산업부 지원 디자인혁신센터	전국29개 주요 대학에 디자인 기자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보제공 등을 인프라 구축 - 우리지역 : 전북대학교	2009년 사업완료 이후 예산 지원이 끊기고 나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상황

- 각 산업별로 기업 지원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전라북도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라북도 디자인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상기 취지와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볼 때,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설치가 필요함
 - 광주디자인센터의 운영을 통해 광주·전남권 디자인 전문회사가 2007년 88개에서 2013년 163개로 증가하였고 매년 디자인 전문교육 이수자를 650여명 배출하여 디자인산업의 수급을 관리
 -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경우 2009년부터 총 60여명의 디자인 분야 1인 창업가를 양성·지원함으로써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 부산디자인센터는 동남권 디자인기반 해양산업 수요조사 및 관련 연구를 통해 해양산업 관련 디자인 기반 구축

2. 전라북도 디자인산업 진단과 전망

1) 타지역에 비해 기반이 취약한 디자인산업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 전라북도내 디자인 관련 사업체수는 152개이며, 종사자수는 448명으로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사업체수는 연간 11%씩 증가한 반면, 전라북도는 연간 23%씩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전문디자인업으로 전체 디자인업체 중 50%를 차지하는 76개임

〈표 4〉 디자인산업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분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전문디자인업	2,413	2,536	2,977	3,117	3,453	3,982	4,573
	인테리어 디자인업	647	666	752	748	784	875	1,009
	제품 디자인업	462	563	665	766	917	1,037	1,145
	시각 디자인업	966	933	1,131	1,130	1,173	1,410	1,656
	기타 전문 디자인업	338	374	429	473	579	660	763
	합계	4,826	5,072	5,954	6,234	6,906	7,964	9,146
전라북도	전문디자인업	22 (0.25)	29 (0.31)	23 (0.21)	29 (0.25)	34 (0.26)	70 (0.47)	76 (0.44)
	인테리어 디자인업	9 (0.38)	9 (0.37)	4 (0.14)	4 (0.14)	4 (0.14)	8 (0.25)	4 (0.11)
	제품 디자인업	2 (0.12)	7 (0.34)	6 (0.25)	5 (0.18)	8 (0.23)	18 (0.47)	23 (0.53)
	시각 디자인업	10 (0.28)	12 (0.35)	12 (0.29)	19 (0.45)	19 (0.44)	37 (0.71)	43 (0.69)
	기타 전문 디자인업	1 (0.08)	1 (0.07)	1 (0.06)	1 (0.06)	3 (0.14)	7 (0.29)	6 (0.21)
	합계	44 (0.25)	58 (0.31)	46 (0.21)	58 (0.25)	68 (0.26)	140 (0.47)	152 (0.44)

()는 LQ지수로 전국 평균 대비 특화 정도를 나타내며, 1이상일 경우 집적되어 있다고 말함

- 하지만, 2006년 이후 전국 대비 특화정도를 파악한 결과, 2012년 기준 LQ는 0.44로 디자인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만 2011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디자인 분야 중에서 시각 디자인업의 LQ지수가 0.69로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LQ지수가 1 미만으로 역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측면에서 볼 때, 전문디자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24명으로 2006년 이후 연간 23%씩 성장하여 전국 평균 성장률(9.8%)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디자인업 종사자의 50%가 전문디자인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디자인산업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지역	분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국	전문디자인업	11,294	12,859	17,348	17,316	18,267	19,672	19,784
	인테리어 디자인업	3,072	3,131	4,678	4,699	4,775	5,005	4,564
	제품 디자인업	2,307	3,256	3,927	4,283	5,035	5,127	5,137
	시각 디자인업	4,279	4,603	5,736	5,751	6,168	6,910	7,019
	기타 전문 디자인업	1,636	1,869	3,007	2,583	2,289	2,630	3,064
	합계	22,588	25,718	34,696	34,632	36,534	39,344	39,568
전라북도	전문디자인업	64 (0.18)	116 (0.29)	82 (0.15)	127 (0.23)	108 (0.18)	210 (0.33)	224 (0.35)
	인테리어 디자인업	28 (0.29)	29 (0.29)	17 (0.12)	7 (0.05)	8 (0.05)	11 (0.07)	5 (0.03)
	제품 디자인업	2 (0.03)	24 (0.23)	30 (0.24)	53 (0.38)	47 (0.29)	37 (0.22)	75 (0.45)
	시각 디자인업	33 (0.24)	61 (0.42)	34 (0.19)	65 (0.35)	48 (0.24)	149 (0.67)	131 (0.57)
	기타 전문 디자인업	1 (0.02)	2 (0.03)	1 (0.01)	2 (0.02)	5 (0.07)	13 (0.15)	13 (0.13)
	합계	128 (0.18)	232 (0.29)	164 (0.15)	254 (0.23)	216 (0.18)	420 (0.33)	448 (0.35)

주) ()는 LQ지수로 전국 평균 대비 특화 정도를 나타내며, 1이상일 경우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

- 2006년 이후 종사자 기준으로 전국 대비 특화정도를 파악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LQ는 0.35로 디자인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업체 기준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의 영세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 관련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전략산업과 전통문화 산업의 성장에 따른 디자인 수요 급증 예상

- 디자인산업은 타 산업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며, 특히 전통산업의 성장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 내 타 산업과 디자인산업과의 성장 관계를 분석한 결과, 1차 산업 종사자수가 14명, 2차 산업 종사자수가 69명, 3차산업 종사자수가 109명, 전통산업 종사자수가 10명 증가할 때마다 디자인 수요가 1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한 분석은 2006년~2012년까지 각 산업별 종사자수의 변화량을 변수로 하여 각 변수가 디자인 수요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여 나온 결과로 이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6〉 전라북도 산업별 디자인 수요 추정 결과

변수	계수	
	사업체 기준	종사자 기준
Y절편	2,635	17,933
전통산업	0.437(**)	0.101(**)
1차산업	1.894(*)	0.069
2차산업	0.207(**)	0.014(*)
3차산업	0.033(*)	0.009(*)

주 :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전라북도의 기존 산업의 성장에 따라 디자인 수요를 예측한 결과, 2020년에 976명, 2030년에는 1,889명의 디자인 종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1~3차 산업과 전통산업의 성장 속도가 과거 6년간의 성장 속도와 같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에 전라북도 종사자수는 802,921명이며, 이 중 전통산업 종사자는 48,98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디자인 수요는 528명이며, 기존 2012년 디자인 종사자 수와 합하면 전체 디자인 수요는 976명임
-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디자인 수요는 1,441명이며, 기존 디자인 종사자 수와 합하면 전라북도에서 필요한 디자인 수요는 1,889명임
- 만약 식품, 탄소 등 제조업의 성장과 전통문화산업이 기존 추세보다 1%씩 더 성장할 경우, 디자인 종사자 수요는 2020년에 1,554명, 2030년에는 3,78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2013년~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디자인 수요는 1,106명이며,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디자인 수요는 3,334명임
 - 전통문화산업의 규모가 1% 추가로 성장할 경우 매년 필요한 디자인 수요는 연간 37명이며, 제조업의 규모가 1% 추가로 성장할 경우 매년 필요한 디자인 수요는 연간 68명임
- 해당 디자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60~90명의 디자인 인력을 양성, 배출해야 하며, 전통문화 산업과 식품 등 주력산업의 급성장시에는 최대 150~300명의 인력이 매년 배출되어야 함

〈표 7〉 전라북도내 디자인 관련 대학(학과) 설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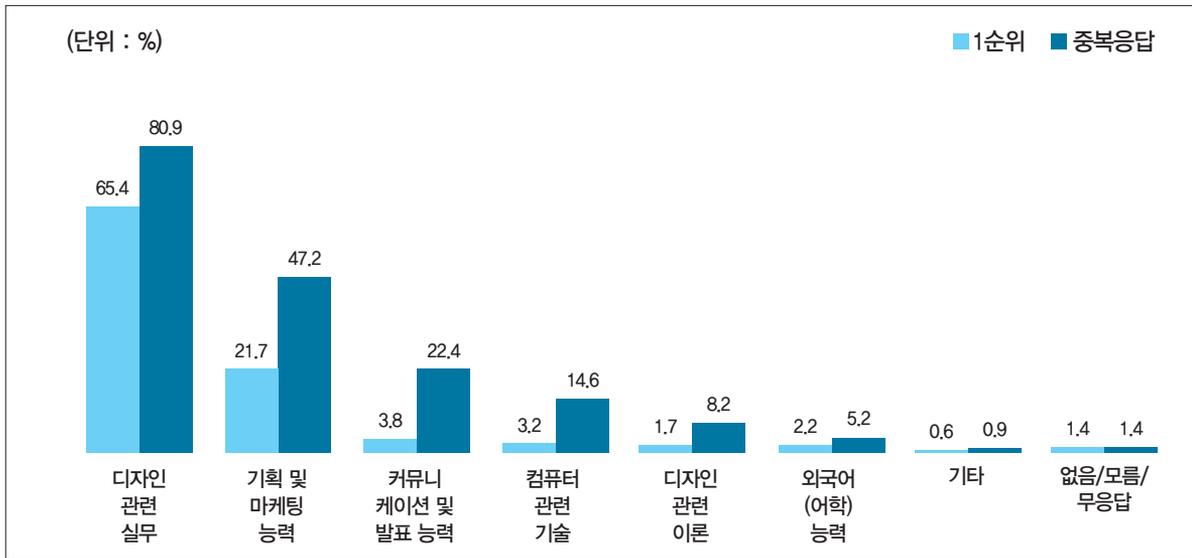
※ 15개 대학 37개 학과

대 학 명	학 과	대 학 명	학 과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세라믹콘텐츠디자인학과	호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서남대학교	디자인학과	군장대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과
예원예술대학교	한지조형디자인학과 귀금속보석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미디어예술학과	백제예술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파티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무대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우석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원광대학교	공간환경산업디자인학과 귀금속보석공예과 시각정보디자인과	전주기전대학교	뷰티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예술조경과 의상코디네이션과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주거환경학과 의류학과	한국폴리텍 V대학교	금형디자인과(김제) 주얼리디자인과(익산)
전주대학교	기술융합디자인공학과 디자인학부	전북과학대학교	디자인과
전주비전대학교	방송영상디자인과		

주) 4개 대학(4개 과정)은 커플링사업으로 기업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음

- 전라북도 내에는 현재 디자인 관련 교육과정이 15개 대학 37개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음. 주얼리 분야가 많고 대부분 예술 계열 학과로 전문문화 및 제조업과 연계된 산업디자인 분야의 확대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현재 전라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학연 커플링 사업 역시 주얼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반적인 디자인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음

- 2013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보고서(전문디자인업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분야로 대부분 '디자인 관련 실무'를 꼽아 대학에서 양성되는 전문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간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음
- 전통공예, 식품,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맞춤형 디자이너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별도로 기업 수요에 대응한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전라북도 디자인센터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광주 디자인센터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내에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명의 전문 디자이너를 배출하여 디자인 전문회사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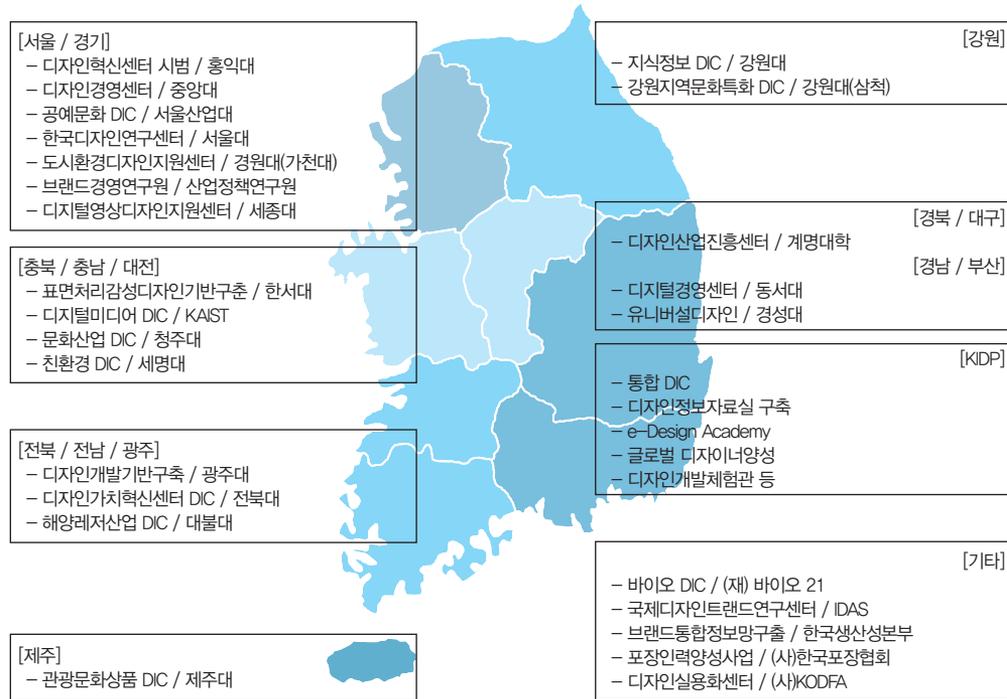
<그림 1>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분야



3. 국내 디자인센터 추진 사례

1) 디자인혁신센터(DIC : Design Innovation Center)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디자인산업 및 산업 전문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대학에 디자인 관련 기자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보제공 등 인프라 구축을 실시하고자 2000년부터 DIC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까지 2단계 디자인 기반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전국에 29개의 디자인혁신센터를 구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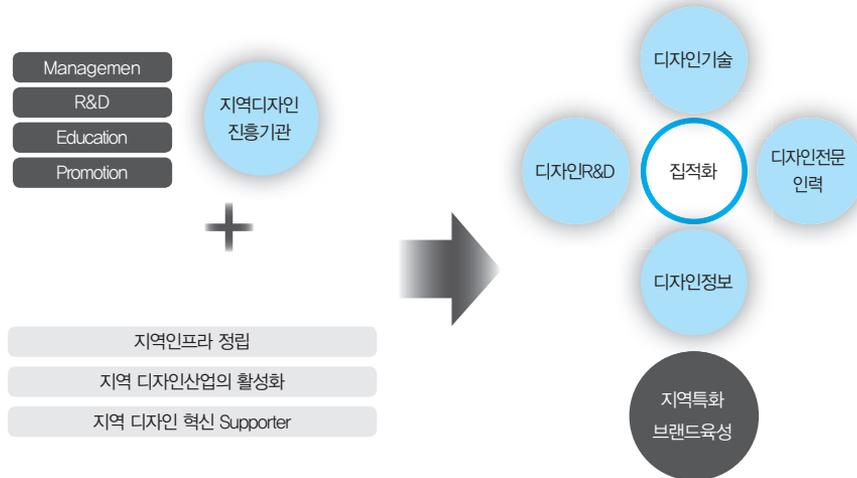


〈그림 2〉 전국 디자인혁신센터 현황

- 디자인혁신센터는 소규모 산학연 지원시설로 산학연 연구개발 및 디자인 장비 공동 활용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상품의 생산성 향상 및 자립화를 꾀함
- 하지만,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지역별 과다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이 원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일부(예 : 전북대학교)는 사업완료에 따라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2) 지역디자인센터(RDC: Regional Design Center)

-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단위에서의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 디자인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중심기능을 하는 지역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 지역디자인센터의 목표

- 지역디자인센터는 권역별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장비 구축과 장비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산업체 등과의 연계운영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디자인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디자인 인프라 구축과 디자인 집목을 통한 지역특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인프라 수준 향상 및 디자인 문화 수준 제고, 첨단 기술에 의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역디자인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디자인센터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 혹은 산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기반 구축,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사업, 디자인 진흥을 위한 전시체험 등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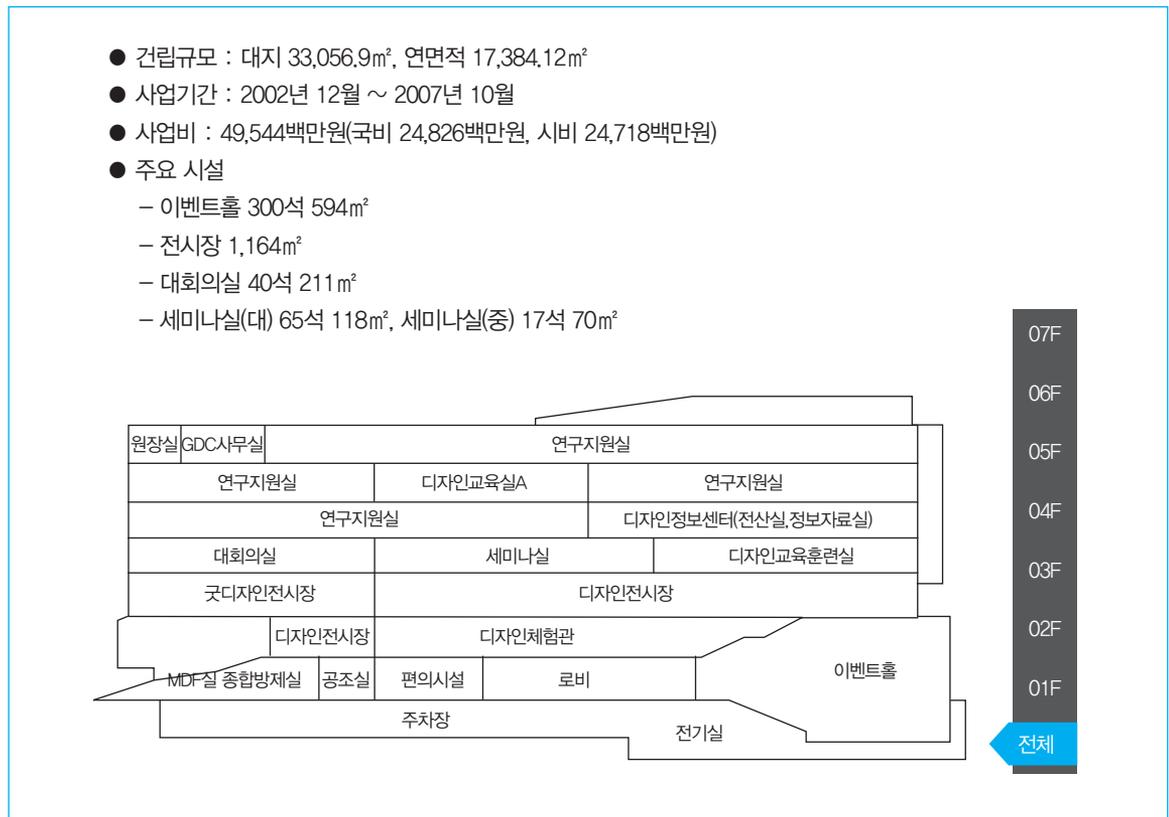
〈표 8〉 지역디자인센터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기반 구축	- 지역 디자인 센서스 사업 - 기업 애로 디자인기술 지원단 운영 사업 - 과제 발굴 연구사업 - 디자인 기술 지원센터 운영사업
디자인 교육사업	- 재학생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학점인정사업 - 유소년 대상 디자인 창의력 교육사업 - 기업 임직원 대상 디자인 경영교육사업
전시체험	- 지역 중소기업 우수 상품 상설 전시 운영 - 각종 전시 및 공모전 사업 유치

- 현재 대구·경북, 부산, 광주 3지역에 설립된 지역디자인센터는 지자체에서 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각 센터는 자체사업비에 의한 주관사업과 정부기관 위·수탁사업 및 참여기관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광주디자인센터는 '지역특화형 디자인비즈니스 Complex센터 구현'을 목표로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기술 개발을 핵심 지원사업으로 추진
 -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특화산업 지원육성과 디자인거점센터를 통한 진흥'이라는 중점 사업목표 아래 디자인진흥사업 추진
 -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IT융복합, 의료기기 디자인 Lab 구축, 국제 CMF(Color Material Finishing) 거점센터 추진,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지역특화형 지원사업을 추진

- 대전과 제주에 지역디자인센터 건립 추진이 예정되어 있고, 강원도도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수도권과 근거리이고 디자인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상황임
 - 지역디자인센터 설립 : 3개소(부산, 대구, 광주)
 - 건립 추진 : 3개소(대전, 강원, 제주) 강원도 미정

〈표 9〉 광주디자인센터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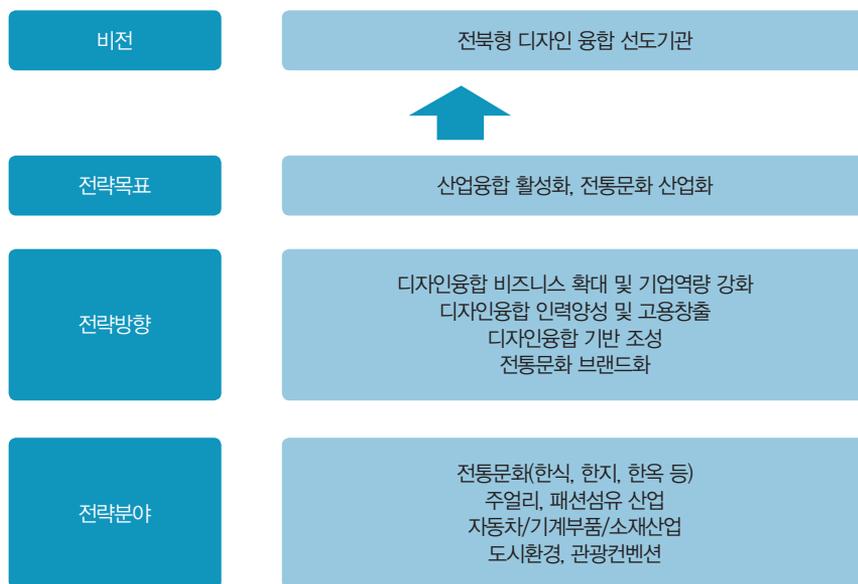


4. 전라북도 디자인센터의 추진 방향

1) 운영 방향

운영 방향 1 전라북도 창조경제 및 융복합 산업화 기반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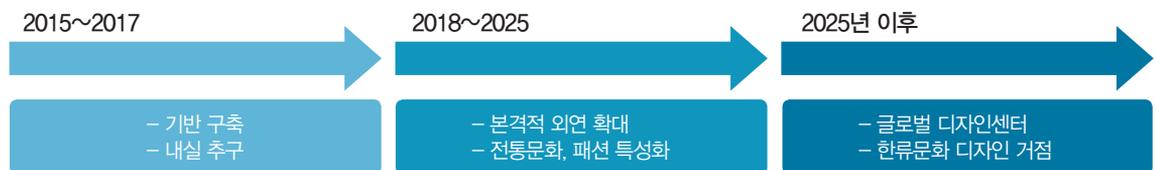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디자인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함으로써 디자인이 주도하는 R&D, 융복합산업, 디자인 비즈니스 생태계 고도화 달성이 제1목표로 추구되어야 함
- 전라북도의 주요 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기계산업, 탄소섬유산업, 식품산업 및 관광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과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만들어 전라북도의 경제 체질을 발전형으로 개선하고자 함
- 디자인 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경제 마인드를 디자인적 사고로 전환하여 디자인산업이 타산업에 융합되어 디자인산업의 신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디자인산업 자체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를 얻고자 함



〈그림 5〉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기본구상

운영 방향 2 전통문화 관련 디자인으로 차별화

-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디자인 수요가 많고 집적화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운영전략 수립
- 전라북도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보존·보호에서 활용·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문화유산의 산업자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통문화산업의 디자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의 활용 및 발전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전통문화 디자인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UNESCO 음식창의도시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국립무형유산원 조성, UNESCO 아테무형문화유산센터 개관, 한지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전통문화산업 관련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
 - 한스타일산업특구로 지정된 전주는 2014년까지 3,233억원(국비 1,390억원)이 투입되어 연구개발과 문화 체험, 산업진흥, 인력양성 등의 15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6〉 전라북도 지역디자인센터 운영 전략

2) 도입 기능

- 전라북도 디자인센터의 주요 도입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전라북도 디자인 산업 진흥 기반을 위한 R&D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 기능으로 디자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간과 중소기업 대상 입주 공간 배치
 - 익산 국가산업단지내 융합합지구에 입주한 시설(귀금속보석연구소, 지식산업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디자인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이들 디자인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과의 연결고리 기능을 담당
- 두 번째, 디자인 산업과 전라북도 전략산업 및 전통문화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연구기능 및 융합형 상품의 테스트 베드 공간 조성
 - 귀금속 산업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등 전라북도형 산업을 지식정보서비스, IT산업과 연계하여 디자인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 담당
 -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내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차별적 상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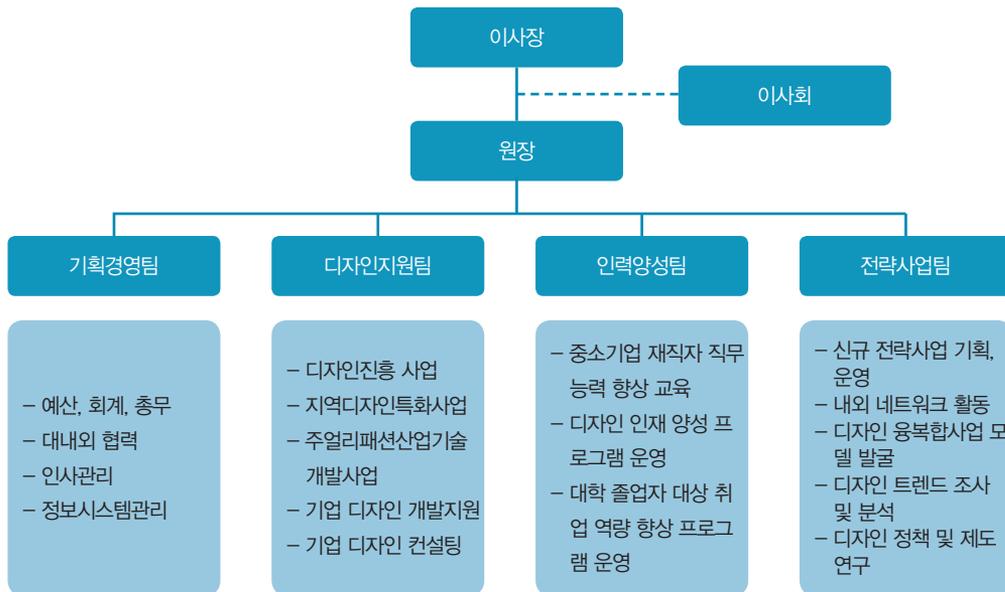
- 세 번째, 디자인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디자인 관련 세미나 및 학술 행사 등의 인적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회의실 구비

〈표 10〉 디자인센터 주요 도입 시설 및 기능

구분	시설	기능
디자인산업 진흥	디자인지원센터 사무실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공공영역의 공간으로 전문디자이너와 디자인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디자인기업 입주공간	전문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관련 기업 입주공간
융합형 산업 발굴	디자인창작 스튜디오	전문디자이너의 공동 작업공간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공간
	디자인정보자료실	디자인 및 전통문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전시실	디자인 전시공간/이벤트홀
	교육실/회의실	디자이너의 재교육, 디자인활용기업을 위한 컨설팅 공간
	상업 및 판매시설	갤러리숍, 카페 등 편의시설

3) 조직 구성

- 이사장과 원장을 축으로 하는 운영진과 기획경영, 디자인지원, 인력양성, 전략사업팀 등 실무형으로 조직을 구성



〈그림 7〉 전라북도 디자인센터 조직 및 업무

● 디자인지원팀

- 전북형 디자인센터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전통문화, 식품산업과 주얼리패션 분야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이 이루어짐
- 공공시설 및 공간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브랜드 확립
- 전라북도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잠재 디자인 수요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디자인지원단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산업단지내 현장방문형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지원

● 인력양성팀

-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
- 기업 수요에 맞는 내용의 교육 제공으로 취업 희망 청년이 우량기업으로 단절없이 이동하는 가교 역할 수행
- 지역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